

고해(告解)의 특별한 방법 「곤치리산노오라쇼(こんちりさんのおらしよ)」

김병락*
kimbl4777@hanmail.net

안병곤**
bgan5319@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2.2 『곤치리산노리아쿠』의 간행 배경과
구성 내용 |
| 2. 「곤치리산」을 통하여 받는 은총-용서
2.1 『곤치리산노리아쿠』는 기존 교리서와
상충하는가 | 3. 하늘에 통하는 「곤치리산노오라쇼」 문장
4. 마무리 |

주제어: 데우스(Deus), 그리스도인(Christão), 고해(penitencia), 고백(confissão), 통회(contrição), 오라쇼(oratio), 변용(transformation)

1. 머리말

1549년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되고, 65년이 지난 1614년에는 막부(幕府)에 의해 선교사 추방령(伴天連直放令)이 내려진다. 이는 선교사의 추방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린 일련의 기리시탄²⁾ 금교령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로, 1873년(明治6年) 해금(解禁)까지 260여 년간에 걸친 탄압의 원점이 된다.

금교령 하에서 잠복 사목 활동을 하던 최후의 사제 고니시 만쇼(小西マンショ)가 순교 당하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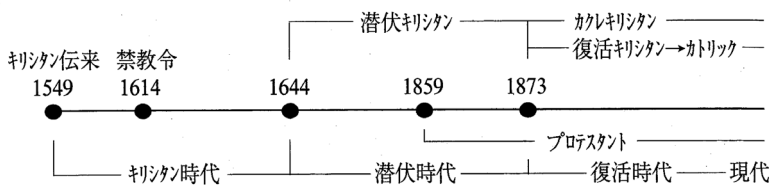
1) 신국사상(神國思想)의 기초 위에 허다한 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일본과 정면충돌하게 되고, 게다가 집권체제를 위협할 잠재적 세력으로 지목받은 일신교(一神教) 기리시탄은 1587년(天正15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선교사 추방령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伴天連(バテレン)」은 당시 padre(パードレ, 神父)의 음역이다.

2) 기리시탄(Christão)은 그리스도교 전래에서 해금까지 일본 그리스도교나 신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여 교계제도가 무너지게 된 1644년부터 해금까지의 신자들을 가리켜 잠복기리시탄(潜伏キリシタン)이라고 한다. 막부의 개종 정책에 강요당하던 이들은 에후미(絵踏³⁾)에 순응하면서도 배교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더럽혀진 발을 씻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통회(contrição)의 기도(oratio)’인 「곤치리산노오라쇼(こんちりさんのおらしょ)」⁴⁾를 하면서 불교나 신도의 신자로 위장하여 비밀 신자 조직 속에서 폐쇄적으로 신앙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조상들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잠복 초기에 느꼈던 위화감이나 죄의식은 옅어지고 모순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습합(習合)과 다신교(多神敎)라는 종교 풍토 속에 동화·매몰되어 새로운 신앙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라쇼에서도 당초 기리시탄시대의 문장이 구전의 반복에 따라 어휘의 탈락이나 추가, 대체, 변용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민속 신앙이나 전통 종교와 습합된 형식의 오라쇼 창작도 일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쇼의 전승은 신자 조직이나 의식(儀式), 교회력에 따른 행사 등과 함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 오게 한 하나의 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주목할 만하다.

해금이 되자 잠복기리시탄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교회로 복귀한 자(復活キリシタン), 불교나 신도의 신자가 된 자(개종자), 가쿠레(숨은)기리시탄(かくれキリシタン/隠れキリシタン/カクレキリシタン)으로 남은 자이다. 여기서 가쿠레기리시탄은 해금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래 당시의 가톨릭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또 하나의 개종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잠복기리시탄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림 1> 기리시탄 역사(略史)⁵⁾

「곤치리산노오라쇼」는 일본 주교 루이스 세르케이아(Luis Cerqueira, 1552-1614)가 저술한

3)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성화상을 밟게 하는 기리시탄 검색 제도 중의 하나이다. 한편 후미에(踏絵)는 에후미에 사용되는 성화상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4) 예수회는 당시 기도를 뜻하는 용어인 기도(祈り·祈念·祈禱)는 주술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가 사용하던 용어인 이유로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는 원어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5) 宮崎賢太郎(2008)『カクレキリシタン オラシヨ — 魂の通奏低音』長崎新聞社, p.19

기리시탄판 소책자 『곤치리산노리야쿠(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1603)에 실려 있는 오라쇼이다. 원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사본이 나가사키(長崎), 소토메(外海), 고토(五島)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그림 2> 가쿠레키리시탄 분포도 참조⁶⁾

「곤치리산노오라쇼」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해설이나 주해를 추가한 오라쇼 모음집, 기요(紀要)⁷⁾ 등에 나타나며, 학위 논문으로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본고 2장에서는 이 소책자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회가 오면 고백할 각오로 곤치리산(통화)을 한다면 용서 받는다’는 가르침이, 급속히 다가올 탄압으로 인한 사제(司祭) 부재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불 기존의 교리를 초월하거나 상충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어휘의 변용이 심한 전승 「곤치리산노오라쇼」를 간행 당시의 어휘로 추정하는 작업을 거쳐 완벽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 잠복기리시탄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탄원하며, 사방은 가로 막혀 있지만 하늘에는 통한다고 믿었던 이 오라쇼의 문장 내용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림 2> 가쿠레키리시탄 분포도(‘●’ 표시)

6) 長崎県文化振興課 <http://tabinaga.jp/column/032.php>, 長崎新聞 2008. 7.26, 朝日新聞 2011. 2.18. 宮崎賢太郎(2009) 「組織崩壊に瀕する長崎県下カクレキリシタンの緊急調査報告」 등 2007-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교세(教勢)를 보면 쇼와(昭和) 초기 나가사키현(長崎県) 각지 및 구마모토현(熊本県) 아마쿠사(天草)에 걸쳐 2-3만 명이었으나 2007-2011년에는 나가사키현 소재 소토메(外海), 고토(五島), 이키쓰키(生月) 등에 걸쳐 수백 명이 산재할 정도로 소멸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長崎の「かくれキリシタン」習俗(風俗慣習)」이라는 명칭으로 日本国選択無形民俗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7)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간행물

2. 「곤치리산」을 통하여 받는 은총-용서

2.1 『곤치리산노리야쿠』는 기존 교리서와 상충하는가

공교요리(公敎要理, 교리서)인 『도치리나 기리시탄(どちりなきりしたん)』(1600)(이하 『도치리나』로 표기)에서 가르치는 기리시탄의 교리 중에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サンタエケレジャの七のサカラメントの事)」 즉, 세례성사(洗禮聖事), 견진성사(堅振聖事), 성체성사(聖體聖事), 고해성사(告解聖事)⁸⁾, 병자성사(病者聖事), 성품성사(聖品聖事), 혼인성사(婚姻聖事)가 있다. 이 중 고해성사(penitencia)는 3단계⁹⁾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즉, 마음에는 ①통회(痛悔, contrição)가, 입에는 ②고백(告白, confissão)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③보속(補贖, satisfação)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곤치리산은 고해성사의 첫 단계인 통회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師 コンチリサンといふは人とがをもて **ぢ**를背き奉りたる所を深く悔ひかなしひ、ふたびを
かすまじきとかたく思ひさだめ、じぶんをもてコンヒサンをすべきかくごをなす事なり。

(どちり나 102)

곤치리산이란 사람이 범죄함으로 테우스를 거역한 것을 슬피 후회하고, 재차 범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기회가 오면 고백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니라.

이상과 같이 고해성사는 테우스(Deus, 天主神하느님·하나님. 이하 ‘테우스’로 표기)로 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선행 절차이며, 곤치리산은 고해성사에 속하는 첫 단계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도치리나』가 간행되고 3년 후에 나온 『곤치리산노리야쿠(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¹⁰⁾(1603)(이하 『곤치리산』으로 표기)에서는 만일 사제가 없을 경우(전쟁이나 고기잡이,

8)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http://info.catholic.or.kr/doctrine/view.asp>(검색일 2013. 7.21)

9) 弟：ペニテンシヤはいくつにきはまるや。고해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師：三にきはまる也。一にはコンチリサンとて發端の後悔。二にはコンヒサンとてことばにてきんげする事。三にはサンチハサンとてしよさをもととがをくりをする事これなり。(どち리나 102)

3가지이니라. 첫째는 곤치리산으로 마음 깊이 후회하는 것이요, 둘째는 고백으로 입으로 참회하는 것이요, 셋째는 보속으로 행위로 죄과를 씻는 것이니라.

10) りやく(리야쿠)는 연구가에 따라 略(줄거리) 또는 利益(은총)으로 보는데, 후자로 볼 때 書名의 의미는 ‘곤치리산(통회)을 통하여 받는 은총’이다.

갑작스런 임종, 박해나 선교사 추방 등으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기회가 주어지면 고백하겠다는 각오로 첫 단계인 통회를 완전히 한다면 대죄(大罪,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다음 단계인 고백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고백성사라고 할 만큼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백의 과정이 생략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여기서 『곤치리산』의 저술 목적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제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고백을 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 ② 임종 자에게 조언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キリシタン 362-4)

뿐만 아니라 고해는 사제가 테우스의 대리자로서 고백을 듣고 용서의 선언을 하지만, 여기서는 ①·②항 모두 대리자가 생략된 형식으로, 스스로 통회하거나 기리시탄이 임종 자를 도와주는 자로 바뀐 것이다. 다만 구원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통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데

- ① 견고한 신앙의 토대위에서
- ② 언젠가 고해 사제를 만나면 고백할 각오를 가지고
- ③ 이후 다시 범죄 하지 않고 계명을 준수하려고 굳게 각오하며
- ④ 이교도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기회가 오면 세례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キリシタン 365-377)

그런데 『곤치리산』에서 말하는 사제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전에 간행된 『도치리이나 기리시탄(どちりいなきりしたん)』(1591)(이하 『도치리이나』로 표기)이나 『도치리나』에서도 예외적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聖 교회 의 규정(たつときエケレジヤの御おきての事)」에서 보면

師 …콘히산을 키 > 玉ふべき 파아텔레ありあひたまはん時せめて一年に一たび콘히산을 申べし。もし 파아텔레ありあひたまはぬか、又はきかる > 事かなはずして 콘히산을 申さ ずは、此 만다멘트를 소むくに 아らず。 (どち리나 85)

…고백을 들어 줄 사제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1년에 1회 고백을 하여야 한다. 만일 사제가 없을 때나 또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 규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은 기리시탄의 수가 많아서 일일이 고백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국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책 「일곱 가지 대죄(七の

モルタル科の事)』(モルタルmortal科: 죽음에 이르는 죄, 즉 대죄를 말함)에서는 고해의 특별한 방법인 통회를 말하고 있다.

師 とがは^{df}にたいし奉りてのらうぜき(狼藉)なるによて、それをく(悔)ひかなしひ、いご二た
びをかすまじきと思ひさだめ、コンヒサンを申か、せめてじぶんをもて¹¹⁾コンヒサンを申
べきかくごをなし、とがをくひかなしむ事これコンチリサンとてとがをゆるさるゝみちな
り。(どちり나 90)

죄는 데우스에 대한 난폭한 행동이므로 그것을 슬피 후회하고 이후 재차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고백을 하든지, 적어도 기회를 얻어 고백할 각오로 죄를 슬피 후회하는 것, 이것이
곤치리산으로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

즉 곤치리산을 하며 고백할 기회를 소원했지만 결국 사제가 없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고백을
못한다면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백의 단계 이전에 데우스의 용서가 있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곤치리산』의 가르침은 교리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사제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의 도래를 예견하고 『도치리나』의 통회를 통한 용서라는 기본 위에서 한층 세분화
되고 교리의 완화를 시도한 ‘통회를 통한 용서와 구원에 관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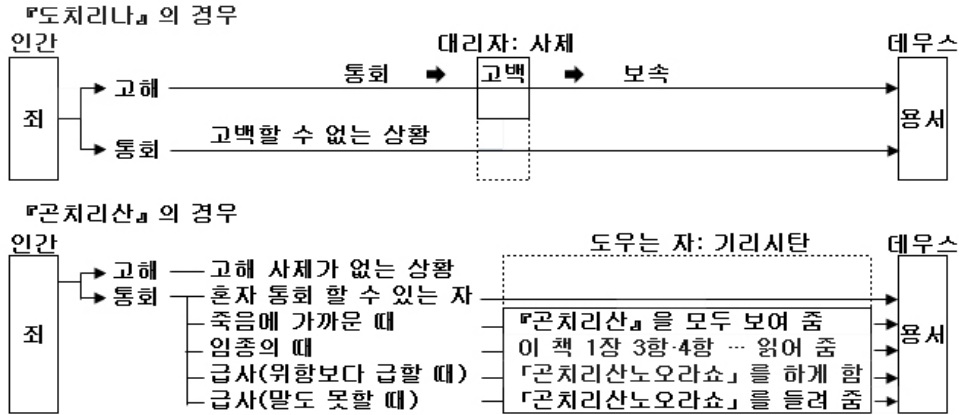
이러한 예외적 적용은 단지 고해 조항뿐만 아니라 『도치리나』의 세례 조항에서도 볼 수
있다.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原罪)와 세례 받기 전까지 지은 죄가 용서되며, 고해를 통하여
세례 이후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세례 받기를 원했으나 기회
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신자로서 신앙에 정진하였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¹²⁾. 또한 세례를
집례 하는 것은 본래 사제의 역할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세례는 필요한 과정이므로 사제가
없는 곳이라면 남녀 불문하고 기리시탄이 배필도록 하고 있다.¹³⁾ 이 가르침을 따라 세례는
미즈카타(水方)나 오지야쿠(オジ役) 등으로 불리는 비밀 신앙 조직의 지도자에 의하여 탄압과
사제가 없는 특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승되어 왔는데, 이 사실은 가쿠레키리시탄의 세례의
식에서 볼 수 있다.

11) 『도치리나』에서도 전체 문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じぶんをもて가 やがて(곧, 즉시)로 되어있다.

12) しんじつパウチズモ(洗礼)をさづかりたくのぞむといへども、そのつゝでをえず、その身のゆだんなくしてよきかくごをもてしするにをひては、たとひみづのパウチズモをさづからずとも、のぞみのパウチズモとなるがゆへにたすかるべき者也。(どち리나 96)

13) しき(式々、正式)にはパウチズモをさづくる事バアテレのやくなり。さりながら…バアテレのなき所にてはおとこをんなによらず此サカラメントをさづくる御ゆるしをあたへ玉ふによて、たれなりともさづくる事かなふものなり。…キリシ탄はいづれもパウチズモをさづくるみちをならふべき事專也。(どち리나 96-97)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치리나』와 『곤치리산』에서 죄를 용서받는 절차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용서의 절차 비교

2.2 『곤치리산노리아쿠』의 간행 배경과 구성 내용

사제의 부족 현상은 전래 초기는 물론 선교 50년이 지나 에도막부로 들어선 1603년 간행 당시에도 기리시탄 30만 명, 교회 수 190개에 이를 때 신부와 수사를 합쳐도 126명¹⁴⁾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제의 순회 고해가 불가피하였고 서면(書面) 고해도 일시적으로 행해진 바 있을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런데 『곤치리산』은 단순히 사제 부족의 보완책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대 탄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즉 고해 사제의 부재로 인한 고해 불가를 예견한 예수회의 결단으로 간행된 것은 전술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리시탄 판과 같이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정세나 일본인 신자에 대한 맞춤형의 간행으로 잠복 기리시탄들이 막부의 강요에 응했다 하더라도 통회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게 했고, 긴 탄압의 기간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있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책 서두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anima)의 구원”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간행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책은 곤치리산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과 실제적 기도문인 「곤치리산노오라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9권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에도막부 말기인 분세(文政, 1818-1830)시

14) 고노이 다카시 지음·이원순 옮김(2008)『일본 그리스도교사』한국교회사연구소, pp.295-296

대에서 다이쇼(大正, 1912-1926)시대에 걸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2권의 표제 및 목차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곤치리산노리야쿠』 목차

구분	순신여자단대(純心女子短大) 기리시탄문고 소장본	가톨릭 나가사키대사교관 (長崎大司教館(大浦天主堂)) 소장본
표제	御出世以来千六百三年 주후(主後) 1603년 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 곤치리산노리야쿠 慶長八年四月下旬 계축8년4월 하순	御出世以来千六百三歳 주후(主後) 1603년 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 곤치리산노리야쿠 慶長八年四月下旬 계축8년4월 하순
목차	第一 こんちりさんの上についてなすべき 四ヶ條の心得の事 제1장 곤치리산을 위 한 4개항의 소양(素養)	第一 こんちりさんの上についてなすべき 四ヶ條の心得の事 제1장 곤치리산을 위 한 4개항의 소양
	第二 こんち리さんとわ何事ぞといふ事なら びにこんち리さんをつとむる道の事 제2장 곤치리산이란 무엇인가, 또한 곤 치리산을 행하는 방법	第二 こんち리さんとわ何事ぞといふ事なら びにこんち리さんをつとむる道の事 제 2장 곤치리산이란 무엇인가, 또한 곤치 리산을 행하는 방법
	第三 こんち리さんをおこすたよりとなる 觀念の事 제3장 곤치리산을 일으키는 관념	第三 こんち리さんをおこすたよりとなる 觀念の事 제3장 곤치리산을 일으키는 관념 (좌측 사본 제5장을 포함하고 있음)
	第四 けうすにたちかゝり奉る罪人の申上 べきこんち리さんの浦暮事 제4장 테우스에게 돌아갈 죄인이 드릴 곤치리산의 오라쇼(통회의 기도)	第四 けうすにたちかゝり奉る罪人の申上 べきこんち리さんのおらつ所の事 제4장 테우스에게 돌아갈 죄인이 드릴 곤치리산의 오라쇼
	第五 ばうちすもを授からざる人も、こん ち리さんをもって、科の御ゆるしをかう むる事、かのふといふ事 제5장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곤치리 산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음	-

3. 하늘에 통하는 「곤치리산노오라쇼」 문장

“오라쇼(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늘에 통하게 하고, 테우스께 아뢰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यो 다리이다”¹⁵⁾라고 『도치리나』에서 말하듯 「곤치리산노오라쇼(통회의 기도)」는 용서와

15) オラシヨはわれらがねん(念)をてんに通じ御あるじ¹⁾に申上るのぞみをかなへ玉ふみちはし(橋)なり。

구원을 소원하는 통회의 기도요 은총의 통로로서 나가사키·소토메·고토系 대부분의 잠복기리시탄이나 가쿠레기리시탄이 암송한 것이며, 이들 조직의 지도자들은 이 소책자 한 권을 모두 암송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변용이 심한 이 오라쇼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예문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간행 당시 채택한 용어로 추정된 다음 이장 마지막 부분에서 완벽해 보고, 아울러 용어 채택의 배경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쿠레기리시탄의 지역별 전승 예문을 비롯하여, 해금 직전 파리와방선교회 소속 나가사키오우라천주당(長崎大浦天主堂) 사교(司教) 프티잔(Bernard-Thadée Petitjean, 1829-1884)이 전승 『곤치리산노리야쿠』를 보정 편찬한 『곤치리산노라쿠(胡無知理佐无の略)』(1869)를 병행 대조해 보고자 한다. 간행 당시 통용된 어휘 여부는 기리시탄판 종교서나 『일포사전(日葡辞書)』(1603-4)에서 찾고자 한다. 또한 이 오라쇼가 담겨있는 기도서로서 해금 후 나가사키의 사교 라게(Emile Ragué, 1854-1929)의 편저 『완전한 통회(完全なる痛悔)』(1902) 「완전한 통회의 기도(完全なる痛悔の祈禱)」¹⁶⁾와 『공교회 기도문(公教会祈禱文)』(1908) 「완전한 통회의 기도(完全なる痛悔の祈禱)」¹⁷⁾를 참고하고자 한다.(밑줄은 대조할 어휘 표시)

① (순신여자단대(純心女子短大) 기리시탄문고 소장본) 萬事かな多たまい、始め終りましませうすの御前に、はかりなく無慙の身として、罷出べき功力なしとわいへども、はがりなき御慈悲に頼みをかけ、諸悪の綱にからめられながら、ただいま御前にいで奉る也。

扱も御身は、始め終りなき無邊廣大の御主に、きわまりなき御善徳の源にてましますに、我等にあたゑくだされしあつき御恩のかず、まことに際限なければ、萬事にこゑて深く御大切に存じ奉りし事こそ本意なるべきに、さわなくしてかへりて罪科の色品をつくしてそむき奉るわが身なれば、いまさら其御赦免かうむり奉るべき身にもあらずとわきまへ奉る也。

我がつておかせし科を陳じ奉らず。たゞ罪科のはなはだ重く、しかも数かぎりなき事を白狀し奉る。しかりといへども、御慈悲はわが科よりも深く御子ぜすゝの、流したもふ御血の御功德は、わが罪科よりもなを廣大にましますとわきまへ奉る也。

しかる時は、いかに御主直の御言葉に、「罪人、わが科を悔やむにおいて、何時もゆつしたまわん」との御約束いま思召しいだしたまいて、わが罪科をゆるしたまへ。すぎし科をいま心の底より、ふかく悔みかなしみ奉る。

深く言上し奉る事、あながち後生にておくべき苦患をおそれての事にもあらず。たゞひとへに御大切にもやうされ、御威光、御善徳はかりましませう御身をそむき奉りし事をかなしみ申も

(どちな 29)

16)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24162>(검색일 2013.11. 2)

17) 近代デジタル라이브러리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99649>(검색일 2013.11. 2)

の也。

いまよりわが進退を改め、二たびもるたる科をおかしてでうすの御内證をそむき奉る事あるまじきと、堅くおもい定め奉るなり。

しかれば、いま御憐みのまなじりを、罪人なる我にめぐらしたまい、わが科のかわりとして、御ざつ所のはかりなき御功德をさゝげ奉れば、これをもって御勸氣をゆるしたまへ。ぜすの御血の御功德と、御身の深きおん憐みに頼みかけおかせし科の御ゆるしをこい奉るもの也、又此訴訟の御取次に御母さんた丸やを頼み奉れば、其御とりあわせを聞しめし入りたまいわれに御勸氣をゆるしたまい。

その功力にはおよばざれども、御子一分に二たび召しくわゑさせたまへ、とつつしんで頼み奉る。
(民間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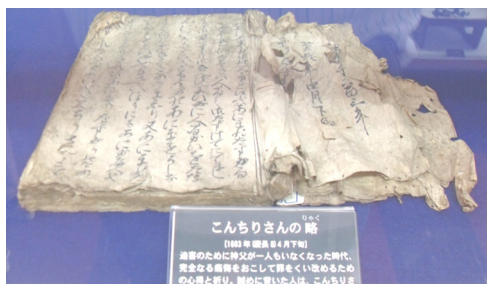
② 가톨릭 나가사키대사교관 소장본(長崎大司教館(大浦天主堂) 所藏本) 萬事かなゑたまへ。始め終りをましまさんでうすの御前にて、はがりなき無慙の身として、罷出べき功力なしとわいへども、はがりなき御慈悲に頼みをかけ、諸惡の綱にからめられながら、たゞいま御前にいで奉る也。

さても御身わ、始め終りなき無辺広大の御主に、きわまる御善徳の源様にてましますに…萬事にこゑて深く御大切に存じ奉りし事こそ本義なるべき、さわなくしてかへりて罪科のつみとがの白品をつくしてそむき奉るわが身なれば…。

しかるといへども、御慈悲わわが科よりも深き御子ぜすゝきりしとの、流したもふ御血の御奇特わ、わが罪科よりもなお広にましますとわきまへ奉る也。

しかるとき、御主直きの御ことばにわ、「罪人、わが科を悔やみかなしみ奉るにおいてわ…。深く御通じ奉りし事…。しかれど、罪人いまよりわが進退を改め、二たびもるたる科をおかせして…いま憐みの御まなじりを、罪人なる我等にめぐらせたまゑ、わが科のかわりとして、御ざつ所にはかりなき御奇特をさゝげ奉れば、…ぜすの流したもふ御血の御奇特と、…御母さんた丸やさま…われ此功力にわおよばざれども、…あんめん-ぜすゝ
(キリシタン 378-80)

③ 소토메 구로사키(外海 黒崎) 萬事かないたまい、始め終りましまさんデウスの御前にて、はかり無慙の身として罷りいすべき功力なしとはいへども、はがりなき御慈悲にたのみをかけ、諸惡の綱にからめられながらただ今御前にいで奉るなり…さても御身は、始め終りなき無偏廣大の御主にて、極り無き御善徳の源にてましまし…萬事にこえて深く御大切に存じ奉るべきことこそ本義なるべきに、さわなくしてかへりて罪



<그림 4> 『곤치리산노라쿠』
長崎市 外海歴史民俗資料館

科のいろしなをつくして背き奉りしわが身なれば…流したもう御血の御功德は…しかるとき御主じきの御言葉には「罪人、わが科を悔やみ悲しみ奉るにおいては…かく言上し奉ること…いまよりわが進退を改めて、ふたゝびモルタル科をおかし…今憐みの御まなじりを罪人なるわれらにめぐらせたまえ。わが科のかわりとして御パッションのはかりなき御功德をさゝげ奉れば、これをもつてわれに御かんきを許したまえ。ゼブスの流したもう御血の御功德と、…御母サンタ・マ리아さま…われこの功力には及ばざれども、…アメン・ゼブス。 (民間 918)

(예문 ①, ②, ③ 등은 나가사키(長崎) 및 소토메(外海) 지역 가쿠레키리시탄의 오라쇼이다. <표 2>와 같이 추정되는 원문상의 어휘와 상당 부분 일치할 정도로, 나머지 지역의 오라쇼 보다 전승면에서 양호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예문 ①은 전승이 양호한 편으로 본 논문의 대표 예문이므로 전 문장을 싣고, 나머지 다섯 문장은 어휘 비교를 위한 문장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닌 어휘 상당수를 생략하였다.)

④ 고토 후쿠에지마(五島 福江島) …けよすさまのおんまゑにて。はかりもさん。なんとして。まかれいずれ。くれき。…きやまんなき。ごぜんろくの。…ほんえなり。べくにて。さわなく。して。かいりて。ざいかの。つみとかをも。ゆるしなをも。…おんちの。ごきろきよりも。…ざいねん。わがとが。くやむにおいてわ。…かく。ごんじよいし。たてまつる。ことおなかしご。しようにてわ。…ぜんちく。…もろたび。とがをして。おかしうして。…ごはいしようのはかりなき。…りよをすさまのおんちのごろきとおんめこ。…おんははさんた。まるやー。…われその。くれきにわ。…あんめん。 (常民 89-88)

⑤ 고토(五島)…ワカレヤ。ミナミミザミトシテ。…アワレナク。ゴゼンドクノ。ミナモトサマニ。…ホインナルバクニテ。サハナクシテ。…ザイゴンモ。イルシ。ナヲモ。…ザニンシワガトガクヤミニ。オイテハ。…フカク。コンジョーシ。…モツタル、トガモ、ゴシシテ。…ジョースノ、オンチト、オクレキト、…オンハハサンタマルヤーサマエタノミタテマツル。…コノクレキニ、オヨビタテマツラントハイヘドモ、…アンメンジョース、カタシケナイ。 (民間 939-40)

⑥ 아마쿠사 사키쓰(天草 崎津) ば志に。かなゑ。たもふ。はじめ。おはい。満らすすぜぶつの。御満江に。はからい。さまのみたさに。満かい。ゆる可。く里き。…きや満り。たもふ。御ぜん。元ち(より)。…御たいせつに。本儀之可し。さハな카して。かいして。つみ。とが。ゆるし候の。…ぜぶつの。御ちに。ごきどきにハ。…わがとが。ふたたび。くやみに。おいてハ。…ごん上し。奉。ことハ。…あらためよ。もど。たるとが。おかし。…わがと가를。かわ里としてご八千に。はかり。なし。…ぜぶつ의。御ちに。御きどうき。…御母々さんた満るやさま。…われ。その。くるき。に。およハ。さる。事。おみこ。老人。ふたゝび。め志。くわゑ。させ。一心に。たのみ。奉。안멘너즈스。 (天草 320-3)

(④, ⑤, ⑥ 등의 예문은 고토(五島) 및 아마쿠사(天草) 지역 가쿠레키리시탄의 오라쇼이다. 신(神)에 대한 호칭은 물론 기타 어휘에 있어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변용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예문 중 밑줄 친 어휘를 해당 셀에 우선 기입한 다음, 어휘 분석한 결과를 ‘추정되는 원문상의 어휘’ 각 셀에 기입한 것이다.

<표 2> 「곤치리산노오라쇼」 원문 어휘 추정

예문	①순신여자단대… (純心女子短大…)	②가톨릭나가사키… (가톨릭 長崎…)	③소토메 구로사키 (外海 黒崎)	④고토 후쿠에시마 (五島 福江島)
㉑	どうす	どうす	デウス	けよす
	ぜすゝ	ぜすゝ	ゼズス	りよをす
	さんた丸や	さんた-丸や	サンタ・マリア	さんた。まるやー
㉒	はかりなく無慙	はがりなき無慙	はかい無慘	はかりもさん
㉓	功力	功力	功力	くれき
㉔	きわまりなき御善徳	きわまる御善徳	極り無き御善徳	きやまんなき。ご ぜんろく
㉕	本意	本儀	本義	ほんえ
㉖	罪科の色品	罪科のつみとがの白 品	罪科のいろしな	ざいかの つみとか
㉗	功德	奇特	功德	きろき
㉘	悔やむ	悔やみかなしみ	悔やみ悲しみ	くやむ
㉙	言上	通じ	言上	ごんじよい
㉚	もるたる科をおか して	もるたる科をおかせ して	モルタル科をおか し	もろたび。とがを して
㉛	ざっ所	ばっ所	パッショ	はいしよう
㉜	功德	奇特	功德	ごろき
㉝	功力	功力	功力	くれき

예문	⑤고토 (五島)	⑥아마쿠사 사키쓰 (天草 崎津)	『곤치리산노라쿠(胡 無知理佐无の略)』	추정되는 원문상의 어휘
㉑	탈락	ぜぶつ	天主	どうす
	ジヨース	ぜぶつ	ぜずす	ぜずゝ/ぜず
	サンタマルヤー	さんた満るや	聖瑪利亜	さんた まりや/さん た まりあ
㉒	ワカレヤ。ミナミ ミザ	はからい。さま	破戒無慙	破戒無慙
㉓	탈락	く里き	功力	功力
㉔	アワレナク。ゴゼ ンドク	きや満り。 たもふ。 御ぜん。元	窮無き御善徳	窮まり無き御善徳

㉔	ホンイ	本儀	本意	本意
㉕	ざいかの。つみとかをも。ゆるしな	つみ。とが。ゆるし	罪科の色品	罪科の色品
㉖	탈락	きどき	功德	功力
㉗	クヤミ	くやみ	悔む	悔ひ悲む
㉘	コンジヨー	ごん上	言上	言上
㉙	モツタル、トガモ、ゴシシテ	もど。たるとが。おかし	もるたる科をおかして	もるたる科をおかして
㉚	탈락	八千	ばつしよ	パシヨン
㉛	クレキ	きどうき	功德	功力
㉜	クレキ	くるき	功力	功力

※ 셀 음영 부분은 추정되는 원문상의 어휘와 동일함을 나타냄.

그럼 위의 <표 2> ㉔행-㉜행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㉔행 추정 어휘 「でうす」「ぜずゝ/ぜず」「さんた まりや/さんた まりあ」

등장하는 3개의 호칭은 각각 「でうす(Deus, 天主/神/하느님/하나님)」「ぜずゝ/ぜず(Jesus/Jesu, 예수)」「さんた まりや/さんた まりあ(Sancta Maria,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라틴어나 포르투갈어로 사용된 것은 불교나 신도 등 이미 토착화한 종교와의 용어 혼란을 피하려는 대책인데, 이는 전래 초기 유일 절대신 테우스를 밀교에서 말하는 모든 부처나 신들의 근원이 되며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부처인 다이니치(大日 = 大日如来)로 번역하는 등, 불교 용어를 빌어 교리를 설명한 결과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곤치리산』이 간행된 1603년 전후의 기리시탄판 종교서에서 대응 용어를 찾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이 어휘를 추정 어휘로 하고자 한다.

<표 3> 호칭 비교

호 칭	『도치리아나』(1591)	『도치리나』(1600)
	『병자를 구원하는 소양(病者を扶くる心得)』(1593)	『오라쇼 번역(おらしよの翻訳)』(1600)
	『살바토르 문지(サルバトルムンヂ)』(1598)	『세크러먼트제요(サカラメンタ提要)』(1605)
테우스	でうす	ꆞꆞ(Deus의 기호)
	でうす	ꆞꆞ
	でうす	でうす

예수	ぜずゝ/ぜず	ぜずゝ/耶穌(Jesus의 기호)/ 袞(Jesu Christo의 기호)*가 혼용
	ぜずゝ/ぜず	ぜずゝ/ぜず/耶穌가 혼용
	ぜず	ぜず
성모 마리아	さんた まりあ	さんた まりや
	없음	さんた まりや
	さんた まりや	없음

* 袞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호

(2) ㉞행 추정 어휘 「破戒無慙」

파계무참은 ‘계명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와 용례를 a.『고어사전(古語辞典)』, b.『일포사전(日葡辞書)』, c.『곤치리산노라쿠(胡無知理佐无の略)』 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a. はかい【破戒】(仏教語)仏門に入った者が戒律を破ること。…
 —無慙(仏教語)仏の戒律を破っても、良心に恥じないこと。「これは一の法師なり」
〈今昔一二三五〉
- b. **Facai.** ハカイ(破戒) Imaximeuo yaburu.(戒めを破る) 教法, または, 禁制を破ること.
Muzan. ムザン(無慙) 同情, あるいは, 憐憫.
- c. 天主(どうす)の御前に破戒無慙の身として
 데우스 앞에 파계무참한 몸으로

Muzan(無慙)에는 동정 또는 연민이라는 뜻만 나타나 있지만 기리시탄판에서 이 어휘가 사용된 점, 그리고 『고어사전』 『곤치리산노라쿠』의 용례를 감안한다면 추정되는 용어는 「破戒無慙」으로 볼 수 있다. 이 어휘는 불교 용어인데 이국땅에 온 선교사로서는 기리시탄종의 토착화가 급선무이었으므로 수용자나 구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불 이러한 용어를 빌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예수회가 원어주의를 채택하면서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100종류 정도에 머문 것은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18) 이 외에도 色身(육체), 色体(육체), 回向(회향), 安心決定(안심결정), 解脱(해탈), 入滅(입적), 教化(교화), 現世(현세), 後生(내세), 慈悲(자비) 등이 있다.

(3) ㉔, ㉕, ㉖, ㉗행 등에서 추정 어휘 「功力」

전승 오라쇼 예문에 나오는 「功力」「功德」「奇特」 등의 올바른 용례는 무엇인지 종교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功力」「功德」에 대한 용례를 a.『사르바토르문지』(1598) 「식사 전의 기도(しよくぜんのおらしよ)」, b.『오라쇼 번역』(1600) 「길을 갈 때의 기도(みちをゆくときのおらしよ)」, c.『세크러먼트제요』(1605) 등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a. 此くるすのもの御功力をもて (おらしよ 51) 이 십자가문의 공력으로
- b. 我の御くりきをもて (おらしよ 75)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 c. 御主の御館に入る功力なき身なるが故 (キリシタン 183)
주님의 나라에 들어 갈 공력 없는 몸인 까닭에

예문과 같이 기리시탄 문헌에는 「功力」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a.『도치리아나』(1591)와 b. 현대어역 『도치리아나』(1591)에서 살펴보면

- a. 皆くるすにて死玉ふ御主ぜず-きりしとの御功力を以て出来たと、天狗はよく知たるによて、大きにくるすを恐るゝ也。 (キリシタン 21-2)
- b. みな十字架上で死なれた主イエス・キリストの功德から出たものであることを、悪魔はよく知っているので、大變十字架を恐れるのである。 (現代語 23)
모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공덕에서 나온 줄을 악마는 잘 알고 있음으로 매우 십자가를 두려워하느니라.

와 같이 당초 「功力」이 현대어역에서는 「功德」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들 어휘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同意)인지 또는 어휘의 의미가 변천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리시탄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a.『고어대사전』과 b.『일포사전』에서 찾아보면

- a. くりき(功力) 功德の力。靈験の力。
공력 공덕의 힘. 영험의 힘.
- b. Curiqi. (功力) Cõno chicara.(功の力)善果を受けるべき功。
공력 좋은 과보를 받을 공.
- a. くどく(功德) 善い行い。また、善い行いによって得られる善い果報。
공덕 선행. 또는 선행으로 인해 받는 좋은 과보

- b. **Cudoku.** (功德) Cōno toku.(功の徳) よい報い[善果]を受けるべき功.
공덕 좋은 과보를 받을 공.

으로 나타나므로 의미가 상이한 「功力」과 「功德」이라는 두 단어를 당시 선교사들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한 것 같다. 그 결과 기리시탄판 문헌에서는 「功力」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였고, 근대에 편찬된 『곤치리산노라쿠』(1869)에서는 「功力」과 「功德」이 병용하다가 『완전한 통회(完全なる痛悔)』(1902) 이후로는 「功德」만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전승 오라쇼 예문에서 「功德」이 나타나는 현상은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불교어로 자연스럽게 대체된 점을 들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공교회 기도문에 통일되게 채택한 「功德」이란 용어에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적절한 어휘는 「功德」이 아닌 「功力」이 될 것이다.

다음은 「奇特」의 용례를 『오라쇼의 번역』 a. 「크레도(けれと)」(사도신경), b. 「모든 기리시탄이 알아야 할 조목(もろーのきりしたんしるべき条々の事)」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a. すびりつ さんとの御きとくをもてやとされ給ひ、びるぜん まりやよりむまれ給ふ
(おらしよ 58)
성령의 신묘(神妙)하심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b. 御主^ち의御ちから、御きとくをもて眞の人とむまれ給ふなり。 (おらしよ 81)
주님은 데우스의 능력, 신묘하심으로 인하여 참 사람으로 태어나시니라.

위에서 「奇特」이 신묘한 능력 또는 기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의 a. 『고어대사전』 및 b. 『일포사전』에서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a. きとく(奇特)① 極めて珍しいこと。不思議なほど優れていること。
지극히 진귀한 일. 불가사의할 정도로 뛰어난 일…
③ 神仏の靈驗。不思議なしるし。신불의 영험. 불가사의한 기적
- b. **Qidocu.** (奇特)不思議、または、奇跡. 불가사의 또는 기적

그러므로 예문 ②에서 “御子^ごぜすゝきりしとの、流したもふ御血の御奇特わ、わが罪科よりもなお広大”(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奇特」(기적, 신묘)은 우리 죄과보다도 더욱 광대)라는 구절에서 「奇特」이라는 어휘는 어울리지 않는다. 내용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죽음을 통하여 데우스가 주시는 은총’을 의미하는 「功力」 또는 「功德」

이 어울리지만 역시 기리시탄판 원문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功力」이 적절할 것이다.

(4) ㉔행 추정 어휘 「極まり無き御善徳」

다음의 용례와 같이 종교서 a.『도치리이나』와 b.『병자를 구원하는 소양』에는 일관되게 「極まる」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c.『학연전역고어사전』¹⁹⁾의 풀이와 같다.

a. 又此後生の道はきりしたんの御定のみに極まる也。 (キリシタン 16)

또한 이 내세(來世)의 길은 오직 기리시탄의 계명에 달려있을 따름이니라.

b. はや極まると見れば、有合たるきりしたん衆、ばあてるのうすてるあべまりやを唱へて、
彼病者に御憐みを下されよとどうすを頼み奉るべし。 (キリシタン 98)

이미 죽음에 가까워 보이면 곁에 있는 기리시탄이 「파테르 노스테르」 「아베 마리아의 기도」를 하고, 그 병자에게 공황하심이 내리도록 데우스께 기도할지니라.

c. きはまる 【極まる・窮まる】

① 極限に達する。きわまる。

出典平家物語 五・都遷

「およそ平家の悪行(あくぎやう)においてはきはまりぬ」

[訳] だいたい平家の悪行については極限に達した。…

③ 終わりとなる。尽きる。きわまる。…

그리고 『도치리나』 「사루베 레지나(サルベ レジナの事)」에서 “ベアト의御さげう(作業)御ぜんどく(善徳)을시리며”(성인의 행함과 선덕을 알아)로 나타나 있으므로 문맥상 ‘한없는 선덕(善徳, 선행에 의한 공덕)’에 해당하는 「極まり無き御善徳」가 적절한 용어로 생각된다.

(5) ㉕행 추정 어휘 「本意」

문맥상 본심·참마음을 뜻하는 「本意」가 어울리는데, 다음 a.『도치리나』 중 통회에 관한 가르침과 b.『병자를 구원하는 소양』 중에서도 볼 수 있다.

a. ばんじにこえて御たいせつにぞんずべき事ほんいたるべきに…

무엇보다 (데우스를)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된 마음인데…

(どちりな 105)

b. ひいですにたがふ事を心に思ひ、又御身に対してみだりなる事を申出す共、それは本意にあらず。 (キリシタン 96)

19) <http://kobun.weblio.jp/content/%E3%81%8D%E3%81%AF%E3%81%BE%E3%82%8B>(검색일 2013.11.4)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께 함부로 말할지라도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리고 예문상의 ②「本儀」(본 의식)나 ③「本義」(문자나 말 등의 본래의 의미)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6) ㉠행 추정 어휘 「罪科の色品」

먼저 「罪科」에 대하여 간행 연도순으로 a.『도치리이나』「주기도(はあてる なうすてるの事)」, b.『살바토르문지(サルバトルムンヂ』「고백…(こんひさん…)」, c.『오라쇼의 번역』「聖水を 받을 때의 오라쇼(となへの水かゝるときのおらしよ)」, d.『일포사전』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悪事とざいくわをのがれ, 악한 일과 죄과를 벗어나
- b. 数々のつみ科を犯したる事を 수많은 죄과를 지은 것을
- c. 御主でうす此たつとき水をもて, わがつみとがをゆるしたまへ
주님, 이 귀한 물로 저의 죄과를 용서하소서.
- d. **Zaiqua.** ザイクワ(罪科) tçumi toga.(罪科) 罪科. 죄과

이상은 『곤치리산노리야쿠』(1603) 간행 전후의 것으로 당시 「ざいくわ」「つみとが」가 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라쇼 예문에서도 이 두 형태가 나타나며 심지어 중복된 ②「罪科のつみとが」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色品」은 『일포사전』에서 **Iro xina.** イロシナ(色品)로 나타나 있으며 ‘여러 가지 종류’를 의미한다.

(7) ㉡행 추정 어휘 「悔ひ悲しむ」

여기서는 a.『도치리이나』, b.『도치리나』, c.『일포사전』에서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弟 もるたる科をゆるさるゝ道はいかん。대죄의 과오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師 …それを悔ひ悲しむ、…科を悔ひ、悲しむ事、… (キリシタン 61)
…그것을 슬피 후회하고 …과오를 슬피 후회하는 것…
- b. 弟 モルタルとがをゆるさるゝみちはいかん。
대죄의 과오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師 …それをくひかなしひ、…とがをくひかなしむ事 …。(どちな 90)

…그것을 슬피 후회하고, …과오를 슬피 후회하는 것…

c. Cui canaximi, u, ùda. クイカナシミ, ム, ユウダ(悔い悲しみ, む, うだ)…

간행연도에 따라 어미의 변화가 보이지만 추정되는 어휘는 「悔ひ悲しむ」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오라쇼 예문에 나타나는 「悔やみ悲しみ」와 관련하여서는 『새크리먼트』에서 “犯せし科を悔み悲しむこと”(범한 죄를 슬피 후회하는 것)와 같은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어휘로 삼지 않은 것은 이 책이 교회 전례를 집행해야할 사제용으로 간행된 이유이며, 아무래도 기리시탄의 교리 교육에 널리 사용된 교리서의 어휘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8) ①행 추정 어휘 「言上」

여기서는 「言上(아뢰)」이라는 어휘가 적절한 것은 다음의 『도치리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유이다.

弟 此オラシヨはたれのつくり玉ふぞや。

이 오라쇼(아베 마리아의 기도)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師 サンがビリエル アンジヨ、たつときビルゼン マリヤに御つげをなし玉ふときの御ことばと、サンタ イザベル ビルゼン マリヤにごんじやうなされたることばに又…(도ちな 34)

성 천사 가브리엘이 귀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알리실 때의 말과, 성 이사벨이 마리아에게 아뢰신 말에 또한…

(9) ①행 추정 어휘 「もるたる科をおかして」

『도치리나』「일곱 가지 대죄(七のモルタル科の事)」에서 보면 “モルタルとがををかす時は、ヒイデスをもうしなふや。”(대죄를 범할 때는 신앙을 잃어버립니까.)와 같은 용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もるたる(mortal)科」는 죽음에 이르는 대죄를 말하며, ②「おかせて」는 「おかして(犯して)」로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㉑행 추정 어휘 「パシヨン」

①「ざつ所」, ②「ぼつ所」, ③「パシヨ」 등은 수난(受難)을 뜻하는 라틴어 발음 「パシヨ(Passio)」에서 비롯된 와전(訛傳)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라쇼 번역』을 비롯한 종교서에는 포르투갈어 발음 「パシヨン(Passion)」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리시탄판 전·중기에 간행된 a. 『도치리나』, b. 『병자를 구원하는 소양』, c. 『오라쇼 번역』에서는 물론, 말기에 간행된 d. 『콘텐츠스

문지(こんてむつすむん地)(1610)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 a. 御主の御ぱしよんを觀念し、謹んで拜み奉るべし。 (キリシタン 55-6)
 주님의 수난을 목상하고 삼가 예배할지니라.
- b. 御ぱしよんの御功力を以て我科を赦し給ひて (キリシタン 99)
 주님께서 수난 받으신 공력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 c. 御あるじ御ぱしよんにのぞみ給ふとき、ぜつせまにのもりのうちにて、御血のあせをながし、御おらしよなされたること。 (おらしよ 78)
 주님께서 수난 당할 즈음에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일.
- d. しんじんをもて ✠のたつき御ぱしよんと御かうせきとに身をなすきりしたんは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생애를 따르는 기리시탄은 (文学1 252)

지금까지 추정된 어휘와 오라쇼 예문을 바탕으로, 하늘에 통한다는 믿음으로 통회하면서 구원을 탄원한 「곤치리산노오라쇼」를 번역 하면 다음과 같다. 덧붙여 이 오라쇼는 공멸(共滅)을 두려워하는 이웃으로 부터는 배척과 밀고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부의 감시 하에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잠복기리시탄에 게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신앙을 전승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데우스에게로 돌아갈 죄인이 드려야 하는 통회의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데우스(でうす) 앞에 계명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破戒無慙) 몸으로 뵈올 공로(功力)는 없지만, 무한하신 자비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악의 굴레에 끌려 다니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주님은 영원광대하시며, 다함이 없는 선덕(窮まり無き御善徳)의 원천이시며, 저희에 게 주신 만 가지 은혜는 참으로 한이 없으셔서, 만사보다 깊이 사랑함이 당연한 마음(本意)일 진데, 오히려 여러 가지 죄(罪科の色品)를 지으며 거역한 몸으로, 이제 와서 용서받을 처지도 못됩니다.

제가 이전에 지은 죄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죄가 심히 무겁고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저의 죄보다 깊고, 아들 예수님(ぜずす/ぜす)이 흘리신 피의 공로(功力)는 저의 죄보다도 한층 광대하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죄인이 자기의 죄를 슬피 후회(悔ひ悲む)하면 언제라도 용서하리라”라는 약속을 생각하시어,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나간 죄를 지금 마음 속 깊이 슬피

후회합니다.

이렇게 아뢰는(言上) 것은 반드시 내세의 고통을 두려워한 까닭이 아닙니다. 다만 오로지²⁰⁾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측량할 수 없는 위광과 선덕이신 주님을 거슬렀던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행동거지를 고쳐 다시는 대죄를 지어(もるたる科をおかして) 데우스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홀의 눈으로 이 죄인을 향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パシヨン) 당하신(예수님의) 한없는 공로를 받으시고 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ぜずす/ぜす)의 피의 공로(功力)와 주님의 깊으신 공홀에 의지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이 호소를 성모 마리아님(さんた まりやさんた まりあ)이 전구²¹⁾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전구를 들어주시어 저의 벌을 용서하옵소서. 공로(功力)는 없지만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기를 삼가 원합니다. 아멘 예수(ぜずす/ぜす).

주님을 배반한 결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면서 데우스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였지만, 오랫동안의 구전으로 말미암아 어휘의 변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토나 아마쿠사 지역의 오라쇼는 구절 해석이 곤란할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아마쿠사 사키쓰(天草 崎津) 지역의 『곤치리산』 제3장 내용 중에서 “大四右三様のくわんねんの外今一どに。たよいと。申のハ。金神様の心ろをとどめ覚へさせたもふ。ものやぜづつ。をこれ。奉もの之。”²²⁾(天草 516) 그리고 제4장의 제목 “…金神様の。おらしさやの事”²³⁾(天草 320) 등에서는 음양도에서 방위신(方位神)의 하나인 「곤진사마(金神様)」가 등장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곤치리산(こんちりさん)」이라는 어휘가 구전되다가, 의미를 모르게 되자 발음이 비슷한 「곤진사마」라는 어휘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며, 절대 유일신(唯一神)을 벗어난 다신교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이 있는 방향에는 건축이사외출혼인 등을 삼가야 하는 흉신(凶神)이며, 방향도 간지(干支)나 계절에 따라 바뀌어서 달력이나 무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20) 예문에는 ひとえに、ひとゑに、ヒトエ 등으로 나타난다. 문맥상 오로지(ひとえに, 偏(こ))로 해석.

21)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구함.

22) 본래의 뜻: 제4, 오른쪽 3개 조항의 관념(목상)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란 곤치리산을 속으로 기억하고 데우스에게 구하는 것이니라.

23) 본래의 뜻: …곤치리산의 오라쇼.

4. 마무리

‘곤치리산(통회)을 통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곤치리산』의 내용은 교리를 초월하거나 상충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 교리서를 만들고, 교리서를 바탕으로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곤치리산』이라는 매뉴얼이 엄박한 금제(禁制)를 예견하였다고 해서 교리서를 초월하여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구원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본 결과 『곤치리산』은 이전의 교리서 『도치리이나』 『도치리나』 등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회가 오면 고백할 것을 각오하고 곤치리산을 한다면 용서받는다든 예외적 조항의 바탕위에서 더욱 세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탄압기의 기리시탄들은 고백할 기회를 간절히 원했으나, 사제의 부재로 대표되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교리를 어긴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이 『곤치리산』을 남기고 자취를 감춘 뒤 잠복 기리시탄들은 하늘에 통한다고 믿었던 「곤치리산노오라쇼」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260여 년 동안 암송과 구전을 거듭한 결과인 가쿠레키리시탄의 오라쇼 예문을 보면 나가사카·소토메 지역은 약간의 어휘 변용이 보이나 고토·아미쿠사 지역은 어휘 변용이 심하여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문맥에 맞도록 누군가가 수정하지도 않은 문장임도 알 수 있다. 이 예문의 주요 어휘를 기리시탄관 간행 당시의 언어로 추정하여 완역해 보았다. 자신의 죄를 슬피 후회하면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막부의 백성으로 주님을 거슬러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성종교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원어주의(原語主義)를 채택하였지만 신(神)에 대한 호칭이나 근본 교리 등 100여 개의 어휘에 불과하고, 오라쇼 예문을 비롯한 기리시탄관 종교서에는 불교용어가 순화되지 않은 채 사용된 곳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교의 추상적인 어휘들을 이해시키고, 민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범신론적인 신(神) 대신에 데우스를 이식하려 했던 선교사들의 고심으로도 보인다.

『곤치리산』은 1587년 히데요시가 내린 선교사 추방령(伴天連追放令)을 시작으로 연이은 금교령이 내려져 선교사의 추방은 물론 기리시탄 탄압이 날로 격화되자 떨지 않아 선교현장에 사제가 없어지고, 고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직감한 예수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 책은 열거한 예문과 같이 나가사카·소토메·고토系 중심의 잠복 기리시탄에 의해 전승되어 왔고 이키쓰키·히라도系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873년 해금 후 전자가

후자보다 더 쉽게 가톨릭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는 『곤치리산노리아쿠』의 전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금이 되자 이 오라쇼를 지닌 나가사키 우라카미(長崎 浦上) 잠복 기리시탄의 전부, 소토메 구로사키나 고토에서 반수 가랑 등 전자에서 교회로 복귀한 수가 많은데 비하여, 후자인 이키쓰키의 경우는 상당수가 그대로 남았으며 현재 가쿠레키리시탄의 수에서도 타 지역 보다 많다. 이는 잠복기리시탄의 습성으로 인해 습합이나 새로운 종교 형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통 종교라는 믿음 위에 교회의 교리와는 이질감마저 느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곤치리산을 통한 데우스의 용서에는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고백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금 이후 다시 나타난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오라쇼를 외우고 있음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고노이 다카시 지음, 이원순 옮김(2008)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土井忠生他編訳(1980) 『邦訳 日葡辞書』 岩波書店
 中田祝夫他編(1983) 『古語大辞典』 小学館
 松村明他(2002) 『古語辞典』 旺文社
 宮崎賢太郎(2008) 『カクレキリシタン オラシヨ — 魂の通奏低音』 長崎新聞社
 _____(2009) 『組織崩壊に瀕する長崎県下カクレキリシタンの緊急調査報告』
 ベルナルド プティジャン編(2012, 復刻版) 『胡無知理佐无の略』 雄松堂書店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page/page.asp?p_code=K4140(검색일 2013. 7.21)
 学研全訳古語辞典 <http://kobun.weblio.jp/content/%E3%81%8D%E3%81%AF%E3%81%BE%E3%82%8B>(검색일 2013.11.4)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24162>(검색일 2013.11.2)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99649>(검색일 2013.11.2)
 長崎県文化振興課 <http://tabinaga.jp/column/032.php>(검색일 2013. 9.14)
 「五島列島 カクレキリシタンとカトリックの胸の内」朝日新聞 2011. 2.18
 「新上五島のカトリック」長崎新聞 2008. 7.26

【예문출전】

海老沢有道他校注(1976) 『キリシタン書排耶書』 日本思想大系25, 岩波書店…………… (キリシタン)
 海老沢有道(1991) 『どちなきりしたん』 岩波書店…………… (どちな)
 尾原悟(2005) 『さりしたんのおらしよ』 キリシタン研究第42輯, 教文館…………… (おらしよ)
 片岡弥吉他(1972)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18 民間宗教』 三一書房…………… (民間)
 新村出柘源一校註(1993) 『吉利支丹文学集 1』 平凡社…………… (文学 1)
 成城大学常民文化研究会(2004) 「五島列島・枕島のカクレキリシタン御帳箱
 : 大小顛末福文書の分析を通して」 『常民文化』 27…………… (常民)

- 浜崎献作(2003)『天草の伝承キリシタンとオラシヨ—その変容と消滅 / 石に遺された信仰の証』
 サンタ・マリア館……………(天草)
宮脇白夜訳(2007)『現代語訳 ドチリイナ・キリシタン』聖母の騎士社……………(現代語)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고해(告解)의 특별한 방법 「곤치리산노오라쇼(こんちりさんのおらしよ)」

본고에서는 소책자 『곤치리산노리아쿠(こんちりさんのりやく)』(1603) 및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곤치리산노오라쇼(こんちりさんのおらし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교리서(catechism)의 가르침과 같이 고해(告解)는 통회(痛悔)→고백(告白)→보속(補贖)이라는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책은 기회가 오면 고해할 각오로 완전한 통회(곤치리산)를 한다면 사제 앞에서의 고백이 없어도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이며, 통회의 기도문이 바로 「곤치리산노오라쇼」이다.

이 책은 급속히 다가올 기리시탄 탄압으로 인한 사제(司祭)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며, 결코 교리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교리서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용된 오라쇼를 간행 당시의 어휘로 고쳐본 후 번역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special way of confession, 「Kontsirisanoorasho」

This paper explored the booklet 『Kontsirisanoriyaku』 and 「Kontsirisanoorasho」 included in the booklet.

As the teachings of the catechism, confession is done through three steps: contrition→confession→satisfaction. However, this booklet is the teaching that if there is complete contrition with preparation for confession at any time, everyone can be forgiven without confession before a priest, and the prayer of complete contrition is 「Kontsirisanoorasho」.

This booklet is a preparation for special circumstances of priest's absence caused by Kirishitan persecution, and it is not against the catechism but based on exceptions of catechism. Lastly, the transformed Orasho will be translated in full after its vocabulary is changed into vocabulary of a time when Orasho was published.